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자기공개와 정보관리전략의 차이와 부모양육행동의 관계*

박 영 신¹⁾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09명과 여학생 131명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자기공개와 정보관리전략이 연령과 문제영역(분별적, 복합적 및 개인적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부모양육행동과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자기공개는 자기공개 의무감, 자기공개 정도, 자기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의 세 측면으로 물어보았고, 부모양육행동은 부모지지, 행동통제와 심리통제를 부모양육행동 척도로 측정하였다. 첫째,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기공개 의무감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분별적 영역에서만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기공개를 더 많이 하였으나 문제영역에 따라 차이는 없었다. 셋째, 부모에게 자기공개를 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분별적 영역에서는 부모가 허락하지 않을까 봐, 나머지 두 영역에서는 자기 사생활이고 부모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넷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보관리전략은 부모가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부모로부터 지지와 행동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공개 의무감과 자기공개가 높았으며, 부모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거나 부모가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공개 의무감과 자기공개가 낮았으며 개인적 영역에서 부모가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전략을 덜 사용하였고 부모와 이야기를 피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자기공개와 정보관리전략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기공개와 정보관리전략이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유사함을 밝혔다.

주요어 : 자기공개, 정보관리전략, 부모양육행동, 사회영역이론, 청소년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교신저자 :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 yoshpark@knu.ac.kr)

I. 서론

청소년 자녀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의 삶에 대한 정보이다. 자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는 적절하게 지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청소년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적응하였다. 학교에서 성취가 더 우수하였고(Cheung, Pomerantz, & Dong, 2013), 자아개념과 자기통제도 더 발달하였으며(Frijns & Finkenauer, 2009), 부모와 관계도 좋았고 나쁜 친구들과 덜 어울렸다(Kerr & Stattin, 2000). 뿐만 아니라 덜 우울하고 규칙위반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덜 하였다(Laird & Marrero, 2010; Laird, Marrero, Melching, & Kuhn, 2013; Soenens, Vansteenkiste, Luyckx, & Goossens, 2006; Stattin & Kerr, 2000).

부모가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청소년 자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자기공개(self-disclosure)이다(Darling, Cumsille, Caldwell, & Dowdy, 2006; Masche, 2010; Smetana, 2008; Stattin & Kerr, 2000). 예를 들어, 부모가 묻지 않아도 하루 일정, 친구나 이성 친구, 학교에서 당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기가 되면 정작 자녀들은 또래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부모와 멀어지면서 부모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다. 또한 자신을 부모와 분리된 개별적인 인격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부모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덜 이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청소년 자녀들의 자기공

개가 어떻게 발달하고, 부모나 청소년 자녀의 특성,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이나 청소년이 성장하는 문화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청소년들의 자기공개와 발달

부모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기공개에 대한 관심은 부모의 모니터링(monitoring)에 대한 재해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과거에는 청소년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자녀의 소재, 활동 및 적응에 관심을 두고 추적하고 감시하는 모니터링이며 모니터링이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청소년들은 각종 문제행동이나 비행에 빠진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Stattin과 Kerr(2000; Kerr & Stattin, 2000)은 과거 모니터링 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과거 모니터링 연구들은 부모의 추적과 감시활동 자체가 아니라 이런 활동으로 얻어진 결과물인 자녀에 대한 지식을 측정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자기공개, 부모가 자녀나 자녀의 친구들에게 묻는 것, 부모가 자녀의 활동이나 관계에 대해 규칙을 정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부모통제를 비교해 본 결과, 자녀의 자기공개가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가장 중요하였고 청소년들의 자기공개가 그들의 적응을 더 잘 예측한다고 밝혀지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청소년들의 자기공개를 포함하여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자기공개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와 관계가 비교적 밀착된 아동기

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 부모에게 많이 이야기 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자기 공개가 많이 감소하였다(Cheung et al., 2013; Masche, 2010; Smetana, Villalobos, Tasopoulos-Chan, Gettman, & Campione-Barr, 2009). 또한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자기공개를 더 잘 하였으나(Cheung et al., 2013; Crouter, Bumpus, Davis, & McHale, 2005; Cumsille, Darling, & Martínez, 2010; Nucci, Smetana, Araki, Nakau, & Comer, 2013) 중학교 이후에는 남자 청소년들의 자기공개는 변화가 없고 여자 청소년들의 자기공개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Keijsers & Poulin, 2013).

더 중요하게는 문제영역에 따라 자기공개 정도가 달라졌다. 사회영역이론(social domain theory; Turiel, 1983)을 적용한 일련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들을 분별적 영역(prudential domain), 복합적 영역(multi-faceted domain), 개인적 영역(personal domain)으로 구분하고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자기공개 정도를 비교하였다. 분별적 영역에는 자신의 건강, 안전, 위해나 편안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포함되었고, 개인적 영역에는 친구, 활동, 스타일, 사생활 등과 같이 자신의 선호나 선택과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복합적 영역에는 이 두 영역과 동시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포함되었다.

청소년들은 분별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 자기공개 의무감을 가장 강하게 느꼈을 뿐 아니라 실제 자기공개도 가장 많이 하였고,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 자기공개 의무감이 가장 낮았을 뿐 아니라 실제 자기공개도 가장 적게 하였다(Nucci et al., 2013; Smetana,

Metzger, Gettman, & Campione-Barr, 2006). 자기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도 문제영역에 따라 달라져서 분별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허락하지 않을까 봐 또는 부모에게 야단을 맞을까 봐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복합적 영역이나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문제이고 부모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Smetana et al., 2009).

청소년들의 자기공개는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청소년들의 독립성이나 사생활을 존중하는 문화에서는 부모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족들 사이의 유대나 조화를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부모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추측처럼 중국 청소년들은 미국 청소년들보다 부모에게 자기공개를 더 많이 하였다(Cheung et al., 2013). 그러나 같은 동양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한 자기공개 의무감 뿐 아니라 자기공개 정도가 상당히 낮았고 자기공개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문제이고 부모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었다(Nucci et al., 2013). 흥미롭게도 일본 청소년들은 분별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 자기공개 의무감을 가장 크게 느꼈으나 실제로는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 자기공개를 가장 많이 하였다. 일본 청소년들처럼 중국계 미국 청소년들도 멕시코계나 유럽계 미국 청소년들보다 자기공개 정도가 낮았고, 특히 개인적 및 복합적 영역의 문제를 덜 공개하였는데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 문제라고 여기거나 또는 부모가 들어주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할까 봐였으며 이런 반응은 다른 인종

의 청소년들에서 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Yau, Tasopoulos-Chan, & Smetana, 2009).

2. 청소년들의 정보관리 전략

청소년들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정보에 부모들이 접근하는 것을 관리한다(Keijsers & Laird, 2010). 앞에서 보았듯이 자발적으로 자기 삶의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모에게 말해도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부모가 물어볼 때에만 이야기할 수도 있으며, 부모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거나 때로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 청소년들은 분별적 영역에서는 부모에게 모두 말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고, 복합적 및 개인적 영역에서는 모두 말하거나 또는 피하는 전략을 비슷하게 사용하였으며 친구문제에서는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Smetana et al., 2009). 그러나 미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의 청소년들은 오히려 분별적 영역에서 피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개인적 및 복합적 영역에서는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Tasopoulos-Chan, Smetana, & Yau, 2009). 그러나 일본 청소년들은 모든 영역에서 부모가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이 이야기를 피하는 전략이었고 다른 전략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Nucci et al., 2013). 이처럼 전반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은 어떤 형태로든 부모에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고 다행이도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거짓말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런 경향은 문화에 따라 별 차이가 없었지만 문제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3. 청소년들의 자기공개와 정보관리전략의 사용과 부모양육행동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자기공개는 부모-자녀 관계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달라졌다. 우선 청소년들은 부모를 신뢰할수록, 부모와 가까울수록, 주어진 문제에 대해 부모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여길수록 자기공개 의무감이 더 컸을 뿐 아니라 실제 자기공개를 더 많이 하였다(Kerr, Stattin, & Trost, 1999; Smetana et al., 2009; Yau et al., 2009).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부모와 갈등 정도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Smetana, 2008; Smetana et al., 2006)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우선 어머니가 권위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들은 부모에게 자기공개를 많이 하였고 그 결과 긍정적 적응기술이 발달하였다(Almas, Grusec, & Tackett, 2011; Darling et al., 2006). 또한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지지와 행동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공개를 더 많이 하였다(Darling, Cumsille, Pena-Alampay, & Coatsworth, 2009; Salafia, Gondoli, & Grundy, 2009; Smetana et al., 2006; Smetana et al., 2009). 그러나 심리통제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일관성이 없었다. 심리통제가 자기공개와 관련이 없거나(Hunter, Barber, Olsen, McNeely, & Bose, 2011), 자기공개를 촉진하거나(Smetana et al., 2006) 또는 자기

공개를 감소시켰다(Hawk et al., 2013; Soenens et al., 2006).

정보관리전략도 유사한 변인들이 예측하였다. 부모가 권위적이고(Darling et al., 2006), 부모를 신뢰할수록(Laird & Marrero, 2010; Smetana et al., 2009; Tasopoulos-Chan et al., 2009), 부모에게 지지와 행동통제를 많이 받을수록(Cumsille et al., 2010; Smetana et al., 2009; Tilton-Weaver et al., 2010),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모두 이야기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고, 이야기를 피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전략을 덜 사용하였다.

4. 연구의 목적

부모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기공개와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들의 자기공개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가 일본(Nucci et al., 2013), 중국(Cheung et al., 2013), 칠레와 필리핀(Darling et al., 2009), 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Hunter et al., 2011)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기공개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기공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자기공개와 정보관리전략이 연령과 문제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자기공개는 자기공개 의무감, 자기공개 정도, 자기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둘째, 청소년들의 자

기공개 의무감, 자기공개 정도와 정보관리전략이 부모양육행동(부모지지, 행동통제, 심리통제)과 관계가 있으며 그 관계가 문제영역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나라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기공개와 정보관리전략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경기도에 소재한 2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2학년 학생 290명이 연구에 참가하였고 이 가운데에서 응답이 부실하였던 50명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중학생 119명(남학생 53명, 여학생 66명)과 고등학생 121명(남학생 56명, 여학생 65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중고등학생의 평균 연령은 각각 14.05세와 16.95세였다. 평균 가족 수는 4.28명으로 대부분이 부모, 자신과 형제 1명으로 구성되는 핵가족이었다. 부모의 평균 연령은 각각 47.02세와 44.45세였다. 부모학력은 아버지의 58.8%가 대학교, 20.9%가 고등학교, 10.4%가 대학원 졸업 이상이었고 어머니의 50.8%가 대학교, 29.6%가 고등학교, 5.4%가 대학원 졸업 이상이었다. 과반수의 부모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었다. 아버지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37.9%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는 가정주부가 48.8%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배경에 관한 문항, 자기공개와 정보관리전략을 측정하는 문항, 부모양육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들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생년월일, 가족구성원, 출생순위, 부모의 연령과 직업을 물어보았다.

자기공개는 세 문제영역 즉 분별적, 복합적 및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각 문제에 대해 자기공개 의무감, 자기공개 정도, 자기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와 정보관리 전략을 측정하였다. 자기공개 의무감이란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야한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고, 자기공개 정도는 실제 부모에게 자기공개를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정보관리전략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나타낸다.

자기공개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문제를 만들기 위해 선행연구에서(Nucci et al., 2013; Smetana et al., 2006; Yau et al., 2009) 사용되었던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선정하여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분별적 영역(예, 담배피운 것, 술 마신 것, 학교 수업을 빼 먹은 것 등), 복합적 영역(예, 부모가 싫어하는 친구들과 어울린 것, 폭력적 비디오 게임을 한 것, 인터넷에서 방문한 웹 사이트의 종류와 내용 등)과 개인적 영역(예, 외출할 때 입는 옷,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용돈을 어떻게 썼는지 등)에 각 7문제씩 총 21개의 문제를 사용하였

다. 질문지에는 분별적 영역 7문제, 복합적 영역 7문제, 개인적 영역 7문제를 차례로 제시하였다. 청소년들은 각 문제에 대해 자기공개 의무감과 자기공개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자기공개 의무감의 내적 일치도는 분별적 영역 .91, 복합적 영역 .87, 개인적 영역 .89였다. 자기공개 정도의 내적 일치도는 분별적 영역 .86, 복합적 영역 .88, 개인적 영역 .90이었다.

부모에게 자기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정한 여섯 가지 이유(부모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난처할까 봐, 부모가 나를 우습게 여길까 봐,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봐, 나의 사생활이고 부모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서, 아무한테도 해가 되지 않으니까) 가운데 각 문제에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하게 하였다. 정보관리전략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정한 다섯 전략(부모에게 중요한 내용을 모두 이야기한다, 부모가 물어보면 이야기한다,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부모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빼고 이야기한다, 부모에게 지어내어 이야기한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부모양육행동은 조주연(2010)이 번안한 Barber, Stoltz와 Olsen (2005)의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는 부모지지(10문항), 행동통제(5문항), 심리통제(8문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각 문항에 대해 자기 어머니의 행동을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조주연(2010)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부모지지 .90, 행동통제 .73, 심리통제 .7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 .93,

행동통제 .85, 심리통제 .87이었다.

3. 연구절차

경기도에 소재한 2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에서 각 한 학급씩 총 네 학급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교의 교사들을 통해 총 일곱 페이지로 구성된 질문지를 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개별 교사의 사정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질문지가 실시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번에 걸쳐 방과 후 수업과 같은 소집단에서 자료가 수집되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질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 자유롭게 응답하게 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자기공개 의무감, 자기공개 정도, 자기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 정보관리전략이 연령과 문제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2(연령)×3(문제영역)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필요할 때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은 피험자 간 변인이고 문제영역은 피험

자 내 변인이었다. 둘째, 자기공개 의무감, 자기공개 정도와 정보관리전략 각각이 부모양육 행동 즉 부모지지, 행동통제, 심리통제와 관계가 있으며, 변인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영역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제영역 별로 연령을 통제한 다음 변인들 사이의 편상관 계수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연령과 문제영역에 따른 자기공개 의무감, 자기공개 정도, 자기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와 정보관리전략의 차이

자기공개 의무감

연령과 문제영역에 따른 자기공개 의무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고 변량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문제영역의 주효과($F_{2,424} = 156.57, p < .01$)와 연령과 문제영역($F_{2,424} = 4.37, p < .05$)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중학생이(평균 3.19점) 고등학생보다(평균 3.03점) 자기공개 의무감이 더 높았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는 분별적 영역에서만 나타났고($F_{1,212} =$

표 1. 연령과 문제영역에 따른 자기공개 의무감과 자기공개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자기공개 의무감		전체	자기공개 정도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분별적 영역	3.79(.91)	3.52(.81)	3.65(.87)	3.09(1.12)	2.88(1.14)	2.98(1.13)
복합적 영역	3.13(.93)	2.90(.79)	3.02(.87)	3.06(1.01)	2.75(.96)	2.90(.99)
개인적 영역	2.64(.92)	2.68(.81)	2.66(.86)	2.95(1.00)	2.80(.86)	2.87(.93)

표 2. 연령과 문제영역에 따른 자기공개 의무감과 자기공개 정도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자기공개 의무감				자기공개 정도			
	<i>SS</i>	<i>df</i>	<i>MS</i>	<i>F</i>	<i>SS</i>	<i>df</i>	<i>MS</i>	<i>F</i>
연령	3.83	1	3.83	2.49	8.96	1	8.96	4.12*
오차	326.46	212	1.54		494.03	227	2.18	
문제영역	109.34	2	54.67	156.57**	1.48	2	.74	1.59
연령×문제영역	3.06	2	1.53	4.37*	.72	2	.36	.77
오차	148.04	424	.35		211.26	454	.46	

* $p < .05$. ** $p < .01$.

5.47, $p < .05$), 복합적 영역이나 개인적 영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분별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 부모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지만 복합적 영역이나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등학생과 비슷한 정도의 자기공개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기공개 정도

자기공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세 문제영역에 속하는 21개의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문제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분별적, 복합적 및 개인적 영역에 대한 반응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62%, 74%와 89%로 분별적 영역의 문제에 대한 반응비율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자기공개 정도는 청소년들이 반응한 문제들에 한해서만 계산하였다. 자기공개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고 변량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F_{1,227} = 4.12$, $p < .05$) 문제영역의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중학생들이(평균 3.03점) 고등학생들보다(평균 2.81점) 부

모에게 자기공개를 더 많이 하였으나 자기공개 의무감과 달리 부모에게 자기공개를 하는 정도는 문제영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았다.

자기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

연령과 문제영역에 따라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이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평균 비율이 5% 이하였던 한 범주(나를 우습게 여길까 봐)를 제외하고 2(연령)×3(문제영역)×5(이유)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연령, 문제영역과 이유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_{1,212} = 4.64$, $p < .05$; $F_{2,424} = 14.04$, $p < .01$; $F_{4,848} = 31.66$, $p < .01$).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자기공개를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사생활이고 부모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 이었고 그 다음이 부모가 허락하지 않거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까 보아서였다.

그렇지만 문제영역과 이유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여서($F_{8,1696} = 95.19$, $p < .01$)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문제영역에 따라 달라졌다. 따라서 문제영역에 따라 자기공

표 3. 연령과 문제영역에 따른 자기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별적 영역		복합적 영역		개인적 영역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35(.31)	.35(.31)	.25(.30)	.19(.28)	.06(.17)	.04(.13)	.21(.19)
내 기분이 나쁘거나 난처할까 봐	.18(.26)	.21(.27)	.09(.18)	.09(.18)	.09(.22)	.05(.17)	.12(.16)
나를 우습게 여길까 봐	.09(.17)	.07(.16)	.06(.15)	.02(.10)	.03(.07)	.02(.07)	.05(.08)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봐	.24(.27)	.20(.27)	.16(.22)	.18(.23)	.08(.21)	.13(.25)	.17(.20)
사생활이고 부모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어서	.06(.15)	.11(.22)	.29(.31)	.38(.33)	.51(.38)	.61(.38)	.33(.24)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으니	.08(.20)	.08(.16)	.14(.21)	.14(.23)	.23(.31)	.16(.28)	.14(.18)

표 4. 연령과 문제영역에 따른 자기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SS	df	MS	F
연령	.02	1	.02	4.64*
오차	.89	212	.00	
문제영역	.07	2	.04	14.04**
연령×문제영역	.00	2	.00	.62
오차	1.07	424	.00	
이유	17.89	4	4.47	31.66**
연령×이유	1.20	4	.30	2.13
오차	119.78	848	.14	
문제영역×이유	38.54	8	4.82	95.19**
연령×문제영역×이유	.62	8	.08	1.53
오차	85.83	1696	.05	

* $p < .05$. ** $p < .01$.

개를 하지 않는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별적 영역에서는 부모가 허락하지 않을까 보아서라는 반응이 다른 반응보다 더 많았고($p < .01$) 그 다음이 부모가 이해하지 못할까 보아서라는 반응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복합적 영역에서는 사생활이고 부모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 다른 반응보다 더 많았고($p < .01$) 그 다음이 부모가 허락하지 않을까 보아서라는 반응이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 영역에서도 사생활이고 부모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 다른 반응보다 더 많이 나타났고($p < .01$) 그 다음은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즉, 분별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가 허락하지 않을까 보아서 공개를 하지 않았고, 복합적 및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생활이고 부모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자기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영역에 따라 달라졌다.

정보관리전략

연령과 문제영역에 따라 청소년들이 각 정보관리전략을 사용한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고, 이 자료에 2(연령)×3(문제영역)×5(전략)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연령과 전략의 주효과($F_{1,145} = 5.17, p < .05$; $F_{4,580} = 85.34, p < .01$)가 유의하였다. 청소년들은 부모가 물어보면 자기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는 부모에게 모두 이야기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는 전략을 비슷하게 사용하면서 양분되었다. 부모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빼고 이야기하거나 이야기를 지어내는 전략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문제영역과 전략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서($F_{8,1160} = 8.80, p < .01$) 문제영역에 따라 정보관리전략의 사용은 달라졌다. 각 전략의 사용비율이 문제영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부모가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전략은 분별적 또는 복합적 영역보다 개인적 영역에서 더 많이 사용

되었다($p < .01$).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부모에게 모두 이야기하는 전략은 복합적 및 개인적 영역보다 분별적 영역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p < .01$).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던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는 전략은 개인적 영역보다 분별적 및 복합적 영역에서

표 6. 연령과 문제영역에 따른 정보관리전략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i>SS</i>	<i>df</i>	<i>MS</i>	<i>F</i>
연령	.02	1	.02	5.17*
오차	.44	145	.00	
문제영역	.00	2	.00	.42
연령×문제영역	.00	2	.00	.31
오차	.87	290	.00	
전략	65.25	4	16.31	85.34**
연령×전략	.45	4	.11	.59
오차	110.86	580	.19	
문제영역×전략	2.67	8	.33	8.80**
연령×문제영역×전략	.26	8	.03	.86
오차	43.97	1160	.04	

* $p < .05$. ** $p < .01$.

표 5. 연령과 문제영역에 따른 정보관리전략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별적 영역		복합적 영역		개인적 영역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이야기 한다	.23(.32)	.17(.27)	.14(.25)	.13(.26)	.12(.31)	.13(.28)	.15(.24)
물어보면 이야기 한다	.50(.38)	.43(.33)	.52(.35)	.52(.35)	.63(.37)	.62(.38)	.54(.31)
이야기를 피한다	.14(.26)	.22(.28)	.16(.26)	.20(.28)	.12(.25)	.16(.26)	.16(.22)
빼고 이야기 한다	.09(.26)	.10(.20)	.11(.23)	.09(.21)	.10(.22)	.06(.13)	.09(.16)
지어내어 이야기 한다	.09(.22)	.09(.19)	.08(.22)	.05(.20)	.06(.19)	.04(.14)	.07(.16)

더 많이 사용하였다($p < .01$). 즉, 세 영역에서 모두 부모가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전략이 다른 전략들 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부모에게 모두 말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는 전략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유사하였지만 문제영역에 따라 특정 전략이 사용되는 비율은 차이가 있었다.

2. 자기공개 의무감, 자기공개 정도, 정보관리전략과 부모양육행동의 관계

자기공개 의무감, 자기공개 정도, 정보관리전략과 부모양육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문제영역 별로 청소년의 연령을 통제하고 변인들 사이의 편상관 계수를 산출하여 표 7에

표 7. 자기공개 의무감, 자기공개 정도, 정보관리전략과 부모양육행동의 상관관계

		부모지지	행동통제	심리통제	
자기공개 의무감	분별적 영역	.18**	.29**	-.16*	
	복합적 영역	.23**	.32**	-.17*	
	개인적 영역	.24**	.31**	-.13	
자기공개 정도	분별적 영역	.36**	.27**	-.26**	
	복합적 영역	.33**	.38**	-.12 ⁺	
	개인적 영역	.42**	.49**	-.20**	
정보관리전략	분별적	모두 이야기	.21*	.17*	-.07
		물어보면 이야기	.19*	.03	-.07
		이야기 피하기	-.21*	-.20*	.05
		빼고 이야기	-.27**	-.05	.04
		지어내어 이야기	-.10	-.01	.07
	복합적	모두 이야기	.16*	.21**	-.05
		물어보면 이야기	.23**	.16*	-.04
		이야기 피하기	-.37**	-.23**	.08
		빼고 이야기	-.05	-.08	.06
		지어내어 이야기	-.07	-.17*	-.03
	개인적	모두 이야기	.20**	.29**	-.05
		물어보면 이야기	.17*	.03	-.16*
		이야기 피하기	-.37**	-.19*	.16*
		빼고 이야기	-.07	-.08	.04
		지어내어 이야기	-.08	-.14 ⁺	.04

⁺ $p < .10$. * $p < .05$. ** $p < .01$.

제시하였다.

자기공개 의무감, 자기공개 정도와 부모양육행동

세 문제영역의 자기공개 의무감은 부모지지($r = .18 \sim .24, p < .01$), 행동통제($r = .29 \sim .32, p < .01$)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모지지보다 행동통제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통제와는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16 \sim -.17, p < .05$). 즉, 부모로부터 지지와 행동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부모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 크게 느꼈지만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의무감을 덜 느꼈다. 이런 경향은 문제영역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세 문제영역의 자기공개 정도는 부모지지($r = .33 \sim .42, p < .01$), 행동통제($r = .27 \sim .49, p < .01$)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심리통제와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26 \sim -.12, p < .05$). 즉, 부모로부터 지지와 행동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자기 삶을 더 많이 공개하였고,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덜 공개하였다. 자기공개 정도와 부모양육행동의 관계는 세 문제영역에서 비슷하였지만 관계의 정도는 달랐다. 자기공개 정도와 부모지지나 행동통제의 상관은 분별적 및 복합적 영역보다 개인적 영역에서 더 커서 청소년들은 부모지지와 행동통제를 받을수록 분별적 및 복합적 영역의 문제보다 개인적 영역의 문제를 더 많이 공개하였다.

정보관리전략과 부모양육행동

세 문제영역에서 부모지지는 부모에게 모두 이야기하는 전략이나($r = .16 \sim .21, p < .05$) 부모가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전략과($r = .17 \sim .23, p < .05$)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모와 이야기를 피하는 전략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37 \sim -.21, p < .05$). 행동통제도 부모지지처럼 세 문제영역에서 부모에게 모두 이야기하는 전략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r = .17 \sim .29, p < .05$), 부모와 이야기를 피하는 전략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23 \sim -.19, p < .05$). 그러나 심리통제는 개인적 영역에서만 부모가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전략과 부적 상관($r = -.16, p < .05$), 부모와 이야기를 피하는 전략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r = .16, p < .05$) 상관은 크지 않았다. 즉, 부모지지와 행동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청소년들은 세 영역의 문제에 대해 부모에게 모두 이야기하는 경향이 높았고 부모와 이야기를 피하는 경향은 낮았다. 그러나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물어보아도 덜 이야기했고 부모와 이야기를 더 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자기공개 의무감, 자기공개 정도, 자기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전략이 연령과 문제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와 부모양육행동과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자기공개 의무감은 연령과 문제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자기공개 의무감을 더 많이 느꼈으나 이러한 차이는 분별적 영역에서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중국이나 미국 청소년들과도 유사하였다(Cheung et al., 2013). 중학생들은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보다 부모와 더 밀접할 뿐 아니라,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인 것 같다.

둘째, 부모에게 자기공개를 하는 정도도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높았지만 자기공개 의무감과 달리 문제영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이 결과는 미국 청소년들이 분별적 영역에서, 일본 청소년들이 개인적 영역에서 가장 자기공개를 많이 했던 것(Nucci et al., 2013; Smetana et al., 2006)과 대조된다. 이는 다른 나라 청소년들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자기공개를 하는 정도를 조절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문제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 청소년들보다 전반적으로 부모에게 자기공개를 더 하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기공개 의무감이 문제영역에 따라 차이가 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결과가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 국한된 현상인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자기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으나 문제영역에 따라 달라졌다. 분별적 영역에서는 부모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 두려워서 이야기하지 않는 반면 복합적 및 개인적 영역에서는 자신의 사생활이고 부모가 간섭할 문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경향은 미국이나 일본 청소년들과도 유사하였다(Nucci et al., 2013). 복합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부모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반응을 더 많이 보였고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자신의 사생활이고 부모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이는 고등학생이 개인적 문제이지만 분별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를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적 문제로 여기는데 반해 중학생은 부모가 통제해야 하는 분별적 문제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며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에서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인식이 더 발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부모의 접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런 경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문제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특히 개인적 영역에서 더 두드러졌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였던 전략은 모두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는 전략이었는데 모두 이야기하는 전략은 분별적 영역에서, 이야기를 피하는 전략은 분별적 및 복합적 영역에서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같이 특정 부분을 빼고 이야기하거나 이야기를 지어내지는 않았다. 이 결과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라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문제영역 이외에 부모-청소년 관

계의 어떤 특징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 전략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지가 앞으로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부모양육행동과 자기공개 의무감이나 자기공개 정도의 관계는 상당히 유사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청소년들은 부모지지와 행동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 영역의 문제 모두에서 부모에 대한 자기공개 의무감이 높았고, 자기공개를 더 많이 하였다. 그러나 분별적 영역에서는 부모지지가 자기공개 정도와 더 큰 상관을 보였으나 개인적 영역에서는 부모지지와 행동통제가 비슷한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분별적 영역에는 술 마시기, 학교 빼 먹은 것과 같이 규칙을 어긴 행동들이 많이 포함되므로 아무래도 이런 행동을 부모에게 공개하는 데에는 부모지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러나 용돈을 어떻게 썼는지, 좋아하는 이성이 누구인지와 같이 자신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내용을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데에 부모지지와 행동통제가 모두 중요하였다. 미국 청소년들은 부모의 행동통제가 심할수록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많이 하였고(Smetana et al., 2009)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의 행동통제를 오히려 침투적이고 지나친 통제로 지각한다는 사실(Kerr & Stattin, 2000; Smetana & Daddis, 2002)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여전히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의 관리를 받고 있을 가능성과 개인적 자율성이 다른 나라 청소년보다 발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청소년들은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부모에 대한 자기공개 의무감이나 자기공개

정도가 낮았다. 이 결과는 심리통제와 자기공개가 관계가 없거나 자기공개를 오히려 촉진한다고 밝혔던 연구의 결과를 기각하면서 Soenens 등(2006)과 Hawk 등(2013)을 지지한다. Soenens 등(2006)이 제안하였듯이 부모로부터 심리통제를 많이 받으면 청소년들은 자신이 규칙이나 규범을 어겼던 행동을 이야기했을 때 부모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지나치게 간섭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싫어서 자기공개를 억제하게 되는 것 같다. 또한 심리통제나 개인적 영역에 대한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청소년들이 우울, 불안 같은 내재화 문제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박영신, 2010; 이은경, 박성연, 2011; 전숙영, 2012) 심리통제가 다른 문제영역보다 개인적 영역의 자기공개와 더 큰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

여섯째, 부모양육행동 중 부모지지와 행동통제와 정보관리전략의 관계도 유사하였다. 청소년들이 부모지지와 행동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모든 문제영역에서 부모에게 모두 이야기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부모와 이야기를 피하는 전략을 덜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부모의 심리통제는 개인적 영역에서 청소년이 사용하는 정보관리전략하고만 관계가 있었고 분별적 및 복합적 영역에서 사용하는 정보관리전략과는 무관하였다. 부모로부터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청소년들은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 부모가 물어봐도 덜 이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을 더 많이 피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에서 나타난 연령과 문제영역에 따른 자기공개의 차이나 자기

공개와 부모양육행동 사이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 중국 청소년들과 상당히 유사하였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기의 자기공개가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며 상당히 비슷한 발달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같은 동양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일본 청소년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기공개 수준이 일본 청소년들보다 높은 편이었고, 자기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로 자신의 사생활이고 부모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 훨씬 적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모두 이야기하는 전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모두 이야기하는 전략도 사용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자기공개에는 동양문화권, 서양문화권같이 큰 문화적 범주보다는 개개 문화나 사회가 갖는 특성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자기공개의 기초적 특징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한계점과 더불어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살펴보겠다. 우선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직접 학생들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교사들의 협조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개별 교사의 사정에 따라 모든 청소년들이 비슷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질문지에 응답하지 못했다. 실제 동일한 응답이 계속 되거나 무응답한 문항이 많았던 질문지가 상당히 많아서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기공개가 문제

영역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각 영역에 포함되는 문제들을 미국, 일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구에서 선택하였다. 따라서 분별적 영역에 문신하기나 흡입제나 약물을 사용하기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별로 경험하지 않는 문제들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분별적 영역에 대한 자기공개는 복합적 및 개인적 영역보다 적은 수의 문제들에 대해 평가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많이 경험하는 분별적 영역의 문제들을 발굴하여 부모에 대한 자기공개가 문제영역에 따라 차이가 없는지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까지 살펴보았던 청소년의 자기공개는 부모들의 청소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에 기여하였다(예, Stattin & Kerr, 2000).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기공개,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지식과 청소년들의 적응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관계는 이미 많이 연구되었지만 문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자기공개에 차이가 나타나듯이 이런 변인들 간의 관계도 문화적 특수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 연구가 요구된다.

또 다른 후속 연구는 청소년들의 비밀을 다루는 것이다. 자기공개와 비밀은 동일 차원의 양 극단처럼 보여서 마치 청소년들의 자기공개에 대한 연구가 곧 청소년들의 비밀에 대한 연구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기공개와 비밀은 서로 다른 차원이고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도 다를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적응이나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달랐다(Smetana et al., 2006). 따라서 청소년들의 비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자기공개에 대한 연구들

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박영신 (2010). 청소년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와 심리적 증상.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51-65.
- 이은경, 박성연 (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01-123.
- 전숙영 (2012). 어머니의 과보호와 청소년의 불안: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4), 61-79.
- 조주연 (2010). 부모 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mas, A. N., Grusec, J. E., & Tackett, J. L. (2011). Children's disclosure and secrecy: Links to maternal parenting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coping skills. *Social Development*, 20, 624-643.
- Barber, B. K., Stolt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 (Serial No.282).
- Cheung, C. S. S., Pomerantz, E. M., & Dong, W. (2013). Does adolescents' disclosure to their parents matter for their academic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84, 693-710.
- Crouter, A. C., Bumpus, M. F., Davis, K. D., & McHale, S. M. (2005). How do parents learn about adolescents' experience? Implications for parental knowledge and adolescent risky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 869-882.
- Cumsille, P., Darling, N., & Martínez, M. L. (2010). Shading the truth: The patterning of adolescents' decisions to avoid issues, disclose, or lie to parents. *Journal of Adolescence*, 33, 285-296.
- Darling, N., Cumsille, P., Caldwell, L. L., & Dowdy, B. (2006). Predictors of adolescents' disclosure to parents and perceived parental knowledge: Between- and within-person differ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 667-678.
- Darling, N., Cumsille, P., Pena-Alampay, L., & Coatsworth, D. (2009). Individual and issue-specific differences in parental knowledge and adolescent disclosure in Chile, the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9, 715-740.
- Frijns, T., & Finkenauer, C. (2009).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keeping a secre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 145-154.
- Hawk, S. T., Keijsers, L., Frijns, T., Hale III, W. W., Branje, S., & Meeus, W. (2013).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Parental privacy invasion predicts reduced parental knowledge. *Developmental Psychology*, 49, 1286-

- 1298.
- Hunter, S. B., Barber, B. K., Olsen, J. A., McNeely, C. A., & Bose, K. (2011). Adolescents' self-disclosure to parents across cultures: Who discloses and wh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6*, 447-478.
- Keijsers, L., & Laird, R. D. (2010).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Careful conversations: Adolescents managing their parents' access to information. *Journal of Adolescence, 33*, 255-259.
- Keijsers, L., & Poulin, F. (2013). Developmental changes in parent-child communication throughout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9*, 2301-2308.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66-380.
- Kerr, M., Stattin, H., & Trost, K. (1999). To know you is to trust you: Parents' trust is rooted in child disclosure of inform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2*, 737-752.
- Laird, R. D., & Marrero, M. D. (2010). Information management and behavior problems: Is concealing misbehavior necessarily a sign of trouble? *Journal of Adolescence, 33*, 297-308.
- Laird, R. D., Marrero, M. D., Melching, J. A., & Kuhn, E. S. (2013). Information management strategies in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change in use and transactional assessment with psychologic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9*, 928-937.
- Masche, J. G. (2010). Explanation of normative declines in parents' knowledge about their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Adolescence, 33*, 271-284.
- Nucci, L., Smetana, J. G., Araki, N., Nakae, M., & Comer, J. (2013). Japanese adolescents' disclosure and information management with parents. *Child Development, 85*, 901-907.
- Salafia, E. H. B., Gondoli, D. M., & Grundy, A. M. (2009). The longitudinal interplay of maternal warmth and adolescents' self-disclosure in predicting maternal knowledg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9*, 654-668.
- Smetana, J. G. (2008). "It's 10 O'Clock: Do you know where your children are?" Recent advances in understanding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s' information management.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2*, 19-25.
- Smetana, J. G., & Daddis, C. (2002). Domain-specific antecedents of psychological control and parental monitoring: The role of parenting beliefs and practices. *Child Development, 73*, 563-580.
- Smetana, J. G., Metzger, A., Gettman, D. C., & Campione-Barr, N. (2006). Disclosure and secrecy in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77*, 201-217.
- Smetana, J. G., Villalobos, M., Tasopoulos-Chan, M., Gettman, D. C., & Campione-Barr, N. (2009). Early and middle adolescents' disclosure to parents about activities in different domains. *Journal of Adolescence, 32*,

- 693-713.
- Soenens, B., Vansteenkiste, M., Luyckx, K., & Goossens, L. (2006). Parenting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 integrated model with adolescent self-disclosure and perceived parental knowledge as intervening variables. *Developmental Psychology*, 42, 305-318.
-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 1072-1085.
- Tasopoulos-Chan, Smetana, J. G., & Yau, J. P. (2009). How much do I tell thee? Strategies for managing information to parents among American adolescents from Chinese, Mexican, and European background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 364-374.
- Tilton-Weaver, L., Kerr, M., Pakalniskeine, V., Tokic, A., Salihovic, S., & Stattin, H. (2010). Open up or close down: How do parental reactions affect youth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of Adolescence*, 33, 333-346.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u, J. P., & Tasopoulos-Chan, M., & Smetana, J. G. (2009). Disclosure to parent about everyday activities among American adolescents from Mexico, Chinese, and European backgrounds. *Child Development*, 80, 1481-1498.

1 차원고접수 : 2015. 04. 11.
수정원고접수 : 2015. 05. 14.
최종게재결정 : 2015. 06. 03.

Differences in Middle and High School Adolescents’ Self-disclosure and Information Management Strategies with Parents and its Relationship to Parenting Behavior

Park, Young-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ifferences in middle and high school adolescents’ self-disclosure and strategies for information management with parents and its relationship to parenting behavior were examined in prudential, multifaceted, and personal domains. Participants consisted of 109 male and 131 female students. An obligation to disclose, actual disclosure about their activities to parents, justifications for nondisclosure, and strategies for information management were measured by self-disclosure questionnaire. Matern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were measured by parenting behavior sca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iddle school students felt more of an obligation to disclose than high school students only in the prudential domain. Second, middle school students disclosed more than high school students in all three domains. Third, adolescents justified nondisclosure in terms of parental disapproval in the prudential domain and personal choices in the other two domains. Fourth, adolescents mostly used the strategy of telling if they were asked. Fifth, maternal support and behavioral control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obligation to disclose, actual disclosure, and the use of the strategies of telling all and telling if asked. However, psychological control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obligation to disclose, actual disclosure, and the use of the strategy of telling if asked only in the personal domain. This study provided the basic information about middle and high school adolescents’ self-disclosure and strategies for information management with parents. Also it was found that Korean adolescents’ self-disclosure and information management with parents were fairly consistent with those of adolescents from other countries.

Keywords: self-disclosure, information management strategy, parenting behavior, social domain theory, adolescents